

# 평화의댐의 진정한 가치

대림산업(주) 소장 | 원정호  
jhwon@daelim.co.kr



금년에 남북관계의 주요 관심사항은 개성공단의 재개 문제였다. 2000년 8월 북한과의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이 시작된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존폐의 기로에서 회생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1단계 건설이 시작되고 이듬해에 시범공단이 준공되었다. 이후 북한은 남한의 군사훈련을 핑계로 2008년 3월 남측인원의 전원 철수를 요구한바 있다. 남북관계의 분수령이 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발생하고 다음날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다. 그해 북한은 12.1 조치를 통해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횡수를 제한했다. 이후 2013년 3월 30일 핵 실험 와중에서 “우리 존엄 훼손하면 개성공단 폐쇄”를 경고하고, 2013년 4월 8일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강행하였다. 이에 남·북실무회담을 거쳐 8월에 정상화 합의에 이른다.

이와 같이 남과 북 사이에는 개성공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되니 않되니, 열고 닫고, 전쟁을 하니 마니, 극과 극을 오가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2001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공동으로 추진되던 임진강수해방지사업도 2007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중단되었다. 2009년 9월 임진강 무단방류에 의해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남한은 공유하천공동이용관리 방안을 북한에 제의하고, 북한은 임진강 황강댐 방류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 역시 2011년 이후 단절되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평화의 댐이 위치한 북한강에서도 비슷하게 전개되어 왔다.

본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하는 평화의 댐은 그 특성상 대

화보다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다. 평화의 댐을 건설하게 된 동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해 북한은 제3차 인민경제7개년계획(1987-1993)을 발표하였다. 실패로 끝난 이 계획에는 금강산댐(현재는 임남댐) 건설이 포함되었으며, 동해안에 금강산발전소(현재는 안변청년발전소)를 짓고 도수터널

표 1. 금강산댐 건설 배경 주요 일지(연합뉴스)

일 자	주요 내용
1986. 4.8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1986. 8.2	평양방송, 금강산발전소가 북한 최대 규모임을 발표
1986. 9.5	북한군 최고사령부 금강산댐 건설에 병력 5만명 동원결정
1986. 10.21	북한, 금강산 발전소 착공발표
1986. 10.30	이규호 건설장관, 금강산댐 건설중지 촉구성명 발표
1986. 11.7	이기백 국방장관, 금강산댐 강행시 자위적조치 언명
1986. 11.26	국방, 건설, 문공, 통일원 4개부처 장관 합동담화, 대 등댐 건설계획 발표
1986. 11.27	북한 전력공업위원회 성명, 우리측 중지요구 반박
1986. 11.28	정부, 남북간 수자원회담 제의
1986. 12.15	평화의 댐 건설추진위원회 발족(위원장 국무총리)
1986. 12.21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 결성(위원장 정수창)
1986. 12.25	북한, 금강산발전소 건설계획 백서 발표
1987. 2.28	평화의 댐 기공
1987. 4.10	국무총리, 북한에 서한 발송(수자원회담 촉구)
1988. 5.27	평화의 댐 1단계 축조공사 완공
1988. 6.30	평화의 댐 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 해산



(45km)로 연결하여 유역변경하는 발전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남한에서는 북한의 수공(水攻)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댐을 구상하는데 이것이 바로 평화의 댐이다. 1986년 10월 30일 당시 이규효 건설부 장관은 “북한이 200억m<sup>3</sup>의 저수용량을 가진 금강산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댐이 무너지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턱까지 물이 차 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다. 20여 일 뒤인 11월 26일 정부는 대응 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평화의 댐이 탄생하게 되었다.(표 1 참조).

이때 정부는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6개월 만에 639억원의 건설성금을 모금하여 공사비로 충당하였다. 1987년 2월 평화의 댐 착공식이 거행되었고 이후 수년간 북한의 수공(水攻)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런 와중에 1989년 댐 높이 85m의 평화의 댐 1단계 공사가 완공되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평화의 댐은 전두환 정부의 정치적 산물로 치부되었고,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은 “금강산댐 위협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고 평가하였다. 결국 평화의 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고 한동안 잊혀진 댐이 되었다.

평화의 댐에 대한 국민의 망각과 의심 속에서 첫 번째 반전이 찾아온다. 1995년 집중 호우가 발생하자 평화의 댐은 수도권 홍수조절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대규모 반전은 2002년 1월 임남댐에서 엄청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 오면서 시작되었다. 난데없는 겨울 홍수에 위성영상을 통해 파악한 결과, 임남댐 상층부에 일부 균열과 훼손이 발견되었다. 사력(沙礫)댐인 임남댐의 부실공사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2000년 10월 1단계 공사(높이 88m)를 끝낸 임남댐은 증축 공사 중이었다. 당시 임남댐은 그 자체로 잠복된 공포였다. 수공 의도가 숨겨져 있건, 허술한 공사 탓에 댐이 터지건 재앙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우리 정부는 극단적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그때부터 불신과 무용론의 평화의 댐이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우리사회가 댐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수공 위협의 과장 논란은 과거 문제로 묻혔으며, 남·북의 임남댐공동조사 논의도 북한의 거부로 시원치 않았다. 결국 정부는 2002년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공사를 선언하고 9월에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 와중에 한국대댐회는 국제대댐회(ICOLD)를 통해 임남댐의 안전성 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명예훼손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결국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공사는 2006년에 완료되었다.(사진 1 참조).

여기서 우리가 꼭 잡고 넘어가야 할 것은 평화의 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과 이후 보강공사를 거치는 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표 2 참조). 금전적 문제를 떠나 온 나라 국민이 수 십년 동안 수리구조물 하나에 의해 댐 붕괴, 전쟁의 공포, 사회적 불안, 정치적 분열 등 종합세트식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었다. 북한의 폐쇄적인 대외정책과 국제공유하천의 국제적 관례를 무시한 태도에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상대국의 사회불안과 군사적 이점을 쉽게 취할 수 있는 비대칭전략을 즐겨 사용하는 북한의 전술적 행위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북한은 모든 부문에서의 열세를 핵무기 한방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이 제한적인 도발로 남한 국민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국이 투자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확실히 무력화 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체계를 개발해 배치함으로써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비대칭 상황은 남북공유하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상류국가가 하천을 단절하여 유역 변경할 경우 하류국가는 최소한의 용수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온다던가, 홍수기에

표 2. 평화의 댐 추진과정에서 국민이 받은 긴장과 스트레스(안중서, 2011)

일 자	주요 내용	긴장 및 스트레스
1986. 04	금강산 발전소 건설계획 발표 (안변청 년 발전소는 북한강의 5개댐 및 임진강 의 2개 댐을 도수 터널 (45km)로 연결, 동해안으로 유역 변경 발전)	1986년 10월 30일 당시 건설부 장관은 “북한이 200억㎡ 의 저수 용량을 가진 금강 산댐을 건설하고 있으며, 댐이 무너지면 서울 여의도 63빌딩 중턱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
1987. 02.	평화의 댐 축조공사 착공	국민대상 건설성금 모금 (6개월 만에 639억원)
1989. 12.	평화의 댐 1단계 축조공사 준공	이후 '수공(水攻)설' 이 끊임없이 제기 (사업비 : 1,506억원)
1996. 09.	임남댐(금강산댐) 1단계 완공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뒤 감사원은 “금강산댐 위험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졌 다”고 발표
2000. 10.	임남댐(금강산댐) 2단계 완공	이후 평화의 댐은 한강수계 다른 댐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 모색
2001. 12.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 착공	화천댐 수위조절에 따른 편익감소
2002. 01.	평화의 댐 보강공사	평화의 댐 증축 관련 하류사석보강 및 물넘이 콘크리트 타설 (사업비 : 160억원)
2002. 01.	임남댐 댐체 안정성 문제 제기	평화의 댐 증축문제 및 북한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요구
2002. 09.	평화의 댐 II 단계 증축공사 착공	2002년 5월 평화의 댐 2단계 증축 공사를 선언하고 9월 공사를 재개
2003. 12.	화천댐 비상방류구 수문설치 준공	비상배수로설치 및 폐쇄 (수문관련 사업비 : 40억원)
2004. 06.	평화의 댐 II단계증축공사준공	임남댐 저수용량을 고려한 댐 증축 (사업비 : 1,916억원)
2007.	평화의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공사	댐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시행 (사업비 : 414억원)

일시에 방류함으로써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이다. 이런 사례는 임진강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해 왔다. 무단방류에 의해 어구가 망가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끝내 2009년 9월 6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에 의해 6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다.

진정한 반전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은 새벽에 황강댐을 열어 4,000만톤을 남쪽으로 흘려보냈다. 고의적이던 우연이던 기습적인 무단 방류로 평화롭게 물 놀이를 즐기던 어린이가 포함된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했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공격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다. 북한의 무단 방류는 전략적으로 치명적 실패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비인간적 행위로 지탄받았다. 이런 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조

치(군남저류지)가 검토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의 댐의 기능에 대해 반신반의하던 국민들도 댐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평화의 댐이 용도에 맞는 평판을 되찾은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임진강의 황강댐 방류나 임남댐의 방류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 주었다고 한다. 2009년 북한은 임진강 무단방류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방류사실을 사전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는 여전히 독단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다. 이런 태도에 대해 2012년 8월 27일 남한정부는 북한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통지 없이 임진강 수계의 댐을 방류한 사실을 지적하고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 항의하였다.



이런 무단방류는 평화의 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지금까지 임남댐에서 8회 방류가 있었는데 2002년, 2004년과 2013년에만 사전에 통보해 주었고 나머지 5회는 방류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남북문제 전문가들은 2013년의 방류통보는 북측의 남북관계 완화 표시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다시 방류사실조차 알려주지 않고 자의적으로 댐을 운영할 것이다. 그래도 걱정이 없는 것은 평화의 담이 북한의 임남댐을 압도하는 규모로 건설해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의 장마기를 보내면서 임진강의 군남저류지가 뉴스 화면의 대부분을 장식하였다. 집중호우가 중부이북지방에 집중된 이유도 있지만 자라보고 놀란가슴 슬뚜경보고

놀란다고 2009년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군남저류지를 건설하지 않았다면 북한 황강댐의 무단방류에 의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평화의 담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북한강 상류는 어떤 상황일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춘천시가 30년만에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임남댐의 붕괴는 아니라도 무단방류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한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

지난 시절 평화의 담에 대한 평가는 보는 관점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시점에서 평화의 담의 공(功)과 과(過)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이미 평화의 담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남북관계는 평화의 담의 실체와 매우



사진 1. 2단계 공사가 완료된 높이 120m의 평화의 담 전경



사진 2. 평화를 상징적으로 웅변하는 평화의 담 기념석



사진 3. 60여개국 탄피로 만든 평화의 탑과 6.25참전국 국기



사진 4.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평화의 종



사진 5. 평화의 댐 주변 비목 공원



사진 6. 백암산에 근무하던 군인이 지은 “비목” 노래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되새겨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 측면으로 댐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평화시대 구현을 위한 동기 제공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댐 크기나 저수용량이 남한 최대의 댐인 소양강 댐과 비슷한 규모로 알려져 있는 임남댐이 파괴될 경우 그로 인한 재앙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가 직접 댐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군사적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댐 건설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했다. 평화의 댐 계획 당시 임남댐이 붕괴될 경우 추정된 첨두 홍수량이 초당 16만 $m^3$ 이다. 한강인도교 지점의 계획홍수량이 초당 37,000 $m^3$ 인 점을 감안하면 이의 5배에 가까운 양이다. 63빌딩의 절반은 아니더라도 서울시 저지대의 대부분은 침수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및 팔당댐에 가해지는 2차 피해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평화의 댐은 임남댐 붕괴시 첨두홍수량을 4개의 도수로 통해 초당 8,200 $m^3$ 을 화천댐으로 방류되고 나머지는 댐내에 저류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임남댐 붕괴에 의해 임남댐 저류량이 모두 평화의 댐으로 유입된다하여도 댐 정상고 E.L.270m에는 미치지

못하게 되어있다. 현재 공사중인 3단계는 위성영상으로 분석된 저수용량의 오차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유입량이 흘러들더라도 댐을 안전하게 유지하면서 홍수량을 제어하자는 취지이다. 평화의 댐에 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홍수조절용 댐처럼 저수지를 비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후자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시 미의회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의 구상을 제안하셨다. 대립의 칼을 내려 놓고 진정성 있는 평화시대로 가자는 의지의 구상이라 평가받고 있다.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통해 통일과 남·북간 경제와 환경 공동체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즉,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생태환경을 공동 보존하는 남·북녹색협력을 통해 경색된 관계를 해소하는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여건이 성숙되면 북한의 임남댐과 남한의 평화의 댐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대화가 시작될 날이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평화의 댐은 본 이야기의 전반부에서 예시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연장선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평화의 공간이면서 자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화의 댐 본체는 하천수 저류용 수리시설로 구조형식상

어쩔 수 없는 건류지(乾留池)라 하여도 댐 주변은 이를 상세하고도 남을 평화와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위의 사진들을 통해 보았듯이 이제 평화의 댐은 “흉물스러운 괴물”이 아니라 치유와 화합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댐 주변의 조형물이나 시설의 주제는 세계평화와 자유, 그리고 남과 북의 화합을 염원해 온 우리의 모습으로 가득하다.

지금의 평화의 댐에서 28년 전의 전쟁의 공포와 수공(水攻)의 위협은 찾아볼 수 없다. 평화의 댐 1, 2단계 공사에 참여했던 저자는 평화의 댐은 황량한 대립의 산물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징으로 재창조되고 있다고 믿는다. 평화의 댐이 정치적 산물이라고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평화의 댐이야말로 국민의 평화를 지키는 자유의 상징물이라 정의하고 싶다. 평화의 댐이 제 가치를 인정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듯이 남북관계의 아픔도 언젠가는 꼭 치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